

IFRS17 도입 앞두고 부채 시가평가 '째깍째깍'

# '회계가 뭐길래' 보험사, 시스템 교체 '난리'

신한·미래에셋, 새 시스템 오픈  
NH농협생명, 내년 7월까지 변경

자체 구축 어려운 중소형사는  
보험개발원과 컨소시엄 구성

보험업계가 오는 2022년 도입 예정인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대비해 새 결산시스템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보험사 부채 평가방식이 '시가'로 평가되는 IFRS17은 보험사의 리스크관리 부담과 요구자본이 늘어나는 만큼 계리결산에 소요되는 시간과 이에 따른 IT인프라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IFRS17 도입 전에 결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 손해보험사들은 오는 2022년 IFRS17 도입을 앞두고 관련 회계결산시스템을 마련 중이거나 마무리 후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신한생명은 지난해 5월부터 진행한 'IFRS17 구축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지난 9월부터 기존의 산출방식과 IFRS17에 적용되는 산출방식을 병행한 결산시스템을 오픈했다. 신한생명은 이번 결산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이고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수의 IFRS17 관



보험업계가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위한 시스템 개발에 나서고 있다.



/신한생명, 미래에셋생명

련 전문 파트너를 프로젝트에 참여시키는 등 150여명의 인력을 투입했다.

미래에셋생명도 2017년 8월부터 계리컨설팅법인 '밀리만코리아'와 공동으로 보험부채 평가를 위한 계리시스템 구축을 시작하고 지난달 'IFRS17 통합시스템'을 오픈했다.

미래에셋생명은 앞으로 통합시스템을 기준 시스템과 병행해 운영하며 IFRS17 회계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22년까지 정확성과 신뢰도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NH농협생명은 지난해 IFRS17 시스템구축 사업 수행자를 LG CNS로 선정하고 내년 7월까지 150억원을 투자해 시스템 구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교보생명도 IFRS17 도입에 앞서 회계 시스템 변경을 추진 중이다.

손보사들도 IFRS17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가하고 있다. 현대해상은 지난 5월 한영회계법인과 함께 IFRS17 통합시스템 구축을 마친 후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KB손보도 지난해 계리부문 시스템 구축 작업을 마쳤고 올해 안에 경영·회계부문에 대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더케이손보는 지난 8월 IFRS17 기반 통합정보계 구축에 나섰다.

계획 지역, 외부 계리·회계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자체적으로 시스템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소형 보험사들은 보험개발원과 힘을 합쳤다.

지난 10월 중소형 보험사와 보험개발원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IFRS17 결산 시스템인 '아크(ARK·Agile, Reliable, Keen)'를 구축하고, 내년 8월 본 가동을 목표로 고도화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컨소시엄에는 DB생명, DGB생명, KDB생명, 푸른현대생명, 흥국생명 등 5개 생명보험사와 농협손보, 더케이손보, 롯데손보, MG손보, 흥국화재 등 5개 손해보험사가 참여했다. 회계법인 KPMG가 검증하고 LG CNS가 시스템을 만들었다.

아크는 보험계약 부채산출을 위한 최적가정 산출부터 현금흐름, 리스크 측정, 재무회계 정보까지 보험사 IFRS 17 계리결산 업무에 필수적인 모든 기능을 제공한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ARK는 입력 자료의 표준화를 바탕으로 컨소시엄에 참여한 10개 보험사의 대부분의 상품을 구현했다"며 "IFRS17 시스템은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모두 적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생보사 관계자는 "IFRS17 도입이 2년밖에 남지 않은 만큼 내년에는 대부분 보험사가 결산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희주 기자 hong93@

## KEB하나은행

금융권 첫 특허출원 완료  
KEB하나 케어신탁 출시  
대중형 유언대용신탁 상품

KEB하나은행은 10일 금융권 최초로 특허출원을 완료한 하나금융그룹 콜라보 상품 'KEB하나 케어신탁'을 출시했다.

KEB하나 케어신탁은 고령화 시대에 치매 등 건강악화로 자산관리가 힘들어질 때를 대비해 안전하게 금융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특화된 대중형 유언대용신탁 상품이다.

건강할 때 지급절차를 미리 지정했다가 치매 등으로 거동이 힘든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병원비·요양비·간병비 등을 효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와 관련해 특허출원까지 완료했다.

아울러 KEB하나은행은 KEB하나 케어신탁과 하나생명의 '무배당 안심케어 연금보험'을 연계해 신탁과 보험의 장점을 결합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무배당 안심케어 연금보험은 LTC(일상생활장해상태 또는 중증치매상태) 진단 확정시, 종신 시까지 생존연금에 케어연금을 더해 연금액을 2배로 수령할 수 있는 LTC특화 연금보험상품이다. 연금수령액이 KEB하나 케어신탁으로 지급돼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했다.

/홍민영 기자 hong93@

## 제17회 보성차밭빛축제

2019. 11. 29.(금)~2020. 1. 5.(일)

한국차문화공원일원

## 2020 보성율포해변불꽃축제

2019. 12. 31.~ 2020. 1. 1.

